

■ 세 미 나

가정의학회지 종설 분석(1999-2001)

염 창 환

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

서 론

지난 추계 학술대회 이후로 새롭게 이사장 및 여러 임원진이 바뀌었다. 간행 부분도 예외는 아니었다. 2002년도부터 향후 2년간 바뀐 간행 위원들이 바뀌면서 대한가정의학 학회지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3년간의 종설을 조사하였다.

본 론

학회지에서 종설은 당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다룬 분야이며, 그 당시 간행위원회의 취지를 내포하기도 한다.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종설은 총 95편이 실렸으며, 평균적으로 한 달에 2.6편이 실린 셈이다.

1999년에 22편 실린 반면 2001년에는 43편이 실려 거의 2배가 실린 셈이다. 가정의학과 학술지에서 종설은 각 질환에 대한 최신 지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많이 실릴수록 좋다고 표현할 수 있다. 1999년에는 대체적으로 비임상분야에 초점을 맞춘 반면 2000년/2001년에는 임상분야에 초점을 맞춘 듯 하다(표 1). 비임상분야에서는 의료정보에 의한 정책 쪽으로 많이 흘렀다. 이는 2000년 7월 의약분업에 대비한 것으로 생각된다. 단 가정의학과 의 의료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나온 내용이다. 임상분야에서는 호흡기 질환, 소화기 질환, 내분비 질환 순으로 많았다. 이것은 일차의료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질환 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. 저자 소속과를 보면 가정의학과가 40명으로 제일 많았고, 그 다음 내과, 신경과 이비인후과 순이었다.

최근 3년간의 종설의 경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. 첫째는 종설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. 즉 가정의학과 학회지는 통상적으로 다른 학회지와는 달리 임상적인 측면에서 원저도 중요하지만 종설이 많아진다고 생각한다. 그러므로 종설 수는 더 늘어도 좋을 듯 하다. 둘째는 1999년에는 비임상분야의 종설이 너무 많이 실렸다고 생각한다. 그리고 그 분야는 일차의료와 의료정보에 관한 내용으로 학회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. 단 그쪽 분야에 대한 내용이 서울대 보건대학원쪽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았나 싶다.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의약분업을 초안하여 입법화시킨 분으로 의협 입장과는 상반되지 않았나 싶다. 셋째는 임상분야에서 가정의학이 흔히 다루는 problem-oriented보다는 disease-oriented 중심으로 내용이 흘렀다. 앞으로는 가급적 증상중심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한다.

결 론

가정의학과 학회지는 다른 과 학회지와는 달리 종설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그리고 그 종설 지면이 더 늘어야 하며, 내용면에서도 정책뿐만 아니라 실제 일차진료에 도움이 되는 임상분야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. 이는 2년 임기인 간행위원들의 성향을 넘어서 장기 계획이 필요함과 동시에 가정의학과 학회지의 종설 주제가 의료현실에 밀접히 연관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. 즉 지속적인 관심과 원하는 주제에 대한 전공의들과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.

염창환: 가정의학회지 종설 분석(1999-2000)

표 1. 내용 분류

	1999년	2000년	2001년	총계
임상	8(36.4)	21(70.0)	37(86.0)	66(69.5)
비임상	14(63.6)	9(30.0)	6(14.0)	29(30.5)
총계	22(100.0)	30(100.0)	43(100.0)	95(100.0)

표 2. 비임상 분야 분류

	1999년	2000년	2001년
논문/통계	2(14.3)	8(88.9)	5(83.3)
의료정보/건강증진	12(85.7)	1(11.1)	
의학교육			1(16.7)
총계	14(100.0)	9(100.0)	6(100.0)

표 3. 임상분야 분류

임상분야		1999년	2000년	2001년	총계
내과	소화기	1	3	3	7
	호흡기	2	2	3	8
	내분비		1	6	7
	심장			4	4
	감염			1	1
	종양		1	3	4
	계	3	7	25	35
외과	일반외과		1		1
	정형외과		2		2
	계		3		3
소아과		1			1
정신과			1	4	5
가정의학과	스트레스		2		2
	노인	3	1		4
	가정의학			2	2
	해외여행		1		1
	계	3	4	2	9

염창환: 가정의학회지 종설 분석(1999-2000)

임상분야		1999년	2000년	2001년	총계
기 타	신경		2	3	5
	피부		1		1
	재활의학			3	3
	이비인후		1	4	5
	약물		1	1	2
	방사선			1	1
	계		5	12	17

표 4. 저자 소속 병원 분류

병 원	1999년	2000년	2001년	총 계
가톨릭의대		8	5	13
성균관의대		7	6	13
울산의대	2	1	7	10
한림의대	4	1	4	9
인제의대	1	2	4	7
고려의대	1	2	3	6
단국의대	1	2	2	5
한양의대	1		3	4
서울의대	2	1		3
인하의대	1	1	1	3
서울대 보건대학원	3			3
연세의원	1		2	3
을지의대		2	1	3
경희의대		1	1	2
가천의대			1	1
경상의대	1			1
관동의대		1		1
국립암센터			1	1
국립의료원	1			1
동국의대			1	1
분당제생		1		1
순천향의대			1	1
이화의대	1			1
개원의	1			1
복지부	1			1

엄창환: 가정의학회지 종설 분석(1999-2000)

표 5. 저자 소속과 분류

소속과	1999년	2000년	2001년	총 계
가정학과	12	14	14	40
내과	3	4	11	18
소아과	1			1
정신과			3	3
신경과		2	3	5
신경외과	1			1
이비인후과		1	4	5
피부과		2		2
재활의학과			1	1
방사선과		1		1
비뇨기과		1		1
통계학		5	5	10
의료정책/관리	6		1	7